Eugene Daily Snapshot

더 내려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

유진투자증권
2026.11.20

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)368-6136_lee.jy@eugenefn.com

주식 ('26. 11. 19)

(단위: pt, %)
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KOSPI	5,137.89	1.4	-3.8	-10.9	21.9
	KOSDAQ	684.81	3.3	-1.7	-15.3	-26.0
미국	DOW	49,097.06	-2.2	-6.1	-5.5	2.2
	S&P500	7,175.83	-2.0	-5.5	-6.7	4.8
	NASDAQ	23,879.20	-2.3	-5.9	-9.7	2.7
	필라델피아 반도체	9,419.72	-2.4	-10.3	-16.8	33.0
유럽	EUROSTOXX50	6,113.86	-0.7	-4.5	-0.5	5.6
	독일 DAX40	25,463.81	-1.1	-4.9	0.6	4.0
아시아	일본 NIKKEI225	59,444.21	0.7	-2.3	-8.4	18.1
	홍콩 항셍	22,841.62	-1.9	-4.9	-5.6	-10.9
	대만 가권	38,426.89	-4.4	-10.8	-17.9	32.7

채권

(단위: %, 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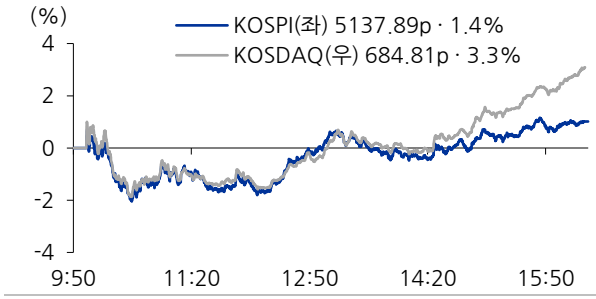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국고채 3 년물	3.72	-2.0	-1.3	-16.1	76.3
	국고채 10 년물	3.94	-3.3	0.5	-26.3	55.7
미국	미국채 2 년물	4.76	-5.1	-12.4	-1.4	128.3
	미국채 10 년물	5.04	-2.1	-8.6	-9.1	87.6
	미국채 30 년물	5.41	-0.8	-4.9	-6.1	56.2

환율 및 원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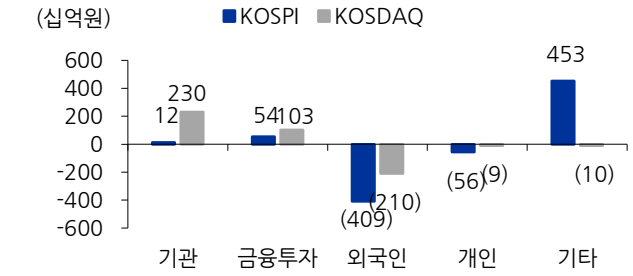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		종가	1D	1W	1M	YTD
환율	원/달러(원)	1,330.00	-0.2	-0.1	0.0	-7.6
	달러지수(pt)	103.91	0.1	0.7	1.9	5.7
원자재	WTI 연결물($)	83.89	0.8	-5.5	-19.1	46.1
	금 연결물($)	3,629.20	-3.0	-6.6	-12.8	-16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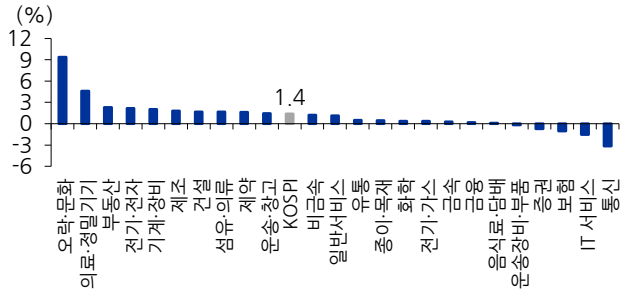
KOSPI ·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('26. 11. 19)



투자자별 일간 수급 동향 (KRX 애프터마켓 포함)



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 ('26. 11.19)



간밤 해외 증시

앤트로픽 데뷔 +17%, 3대 지수는 2%대 급락

- **뉴욕증시 3대 지수는** 앤트로픽 상장 기대에 장 초반 강세였으나, 첫 거래 이후 차익실현·AI주 매도 확산에 2%대 하락 마감. 다우 -2.2%·S&P500 -2.0%·나스닥 -2.3%, 필 반도체 -2.4%. **S&P500은 6거래일 연속 하락, 전 섹터 약세.**
- 앤트로픽(ANT)은 공모가 83달러로 역대 최대인 813억 달러 조달, 시초가 +34.3%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, **공모가 대비 +17.1%로 상승폭 축소 마감. 개인 투자자가 앤트로픽 매수 재원 마련 위해 기존 AI주 매도에 나서며 AI 관련주 전반 수급 이탈.**
- 반도체는 AMD(-7.7%) 급락이 업종 전반 제약. 헌터브룩 캐피털이 AMD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며 **미국 제재 대상 중국 서버업체(IEIT 시스템즈)로의 우회 공급 의혹 제기(AMD 반박).** 엔비디아(-3.3%)는 6거래일 연속 약세. 마벨(-4.9%)·SK하이닉스 ADR(-2.7%)·마이크론(-2.1%)·브로드컴(-2.1%) 동반 약세.
- 헬스케어 매도도 이어지며 유나이티드헬스(-5.6%) 하락. 비자(-3.1%)·마스터카드(-2.6%)·JP모건(-1.2%)은 협력업체 대상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일부 고객 정보 유출 소식에 하락.
- **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6.3(예상 20.6, 전월 20.9)으로 6개월래 최저.**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.3만 건(예상 19.8만 건, 전주 20.2만 건), 연속 청구건수 176.3만 건(+7만 건)으로 9월 초 이후 최고.
-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5.04%(-2.1bp), 2년물 4.76%(-5.1bp)로 하락. VIX는 28.44로 상승(+3.9%).

전일 국내 증시

엔비디아 약세 딛고 고가 마감 & 한중 FTA 타결에 엔터·여행 급등

- **국내 양대 증시는** 엔비디아 약세·연준 빅스텝 우려에 장중 5천선 밑으로 내려왔으나, 장 후반 반도체·한중 FTA 수혜주 강세에 동반 상승**(코스피 +1.4%·코스닥 +3.3%).**
- 1)엔비디아 호실적에도 하락 & 연준 매파 기조. **엔비디아(-2.9%)는 실적·가이던스 서프라이즈에도 경영 공백 우려, SEC 조사 보도·분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하락. 10월 FOMC 의사록에서는 거의 모든 위원이 물가의 적기 2% 복귀를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.** 월러 연준 이사는 12월 0.5%p 인상(빅스텝)과 2027년 인상 속도 가속 필요성을 주장. 코스피는 0.4% 상승 출발 후 반도체 중심 매물에 장중 -2.1%까지 하락. 2)반도체 오후 반등 & 고가 마감. 오후 들어 SK하이닉스(+3.4%)·삼성전자(+1.1%) 상승 전환, **연간 수출 1조달러 돌파(세계 4번째) 이후 장 막판까지 상승폭 확대.** 코스닥은 리노공업(+10.6%)·원익IPS(+8.3%) 등 **반도체 소부장이 상승 주도.**
- 3)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타결 & 한한령 완화 기대. **18일 선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 선언(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).** 중국은 한국 영화·게임 사전심사에 최혜국대우·비차별 원칙 적용 & 공동제작 대상 확대. **스튜디오드래곤(上)·CJ ENM(+28.1%) 등 콘텐츠주 급등, 하나투어·제주항공 등 여행·항공으로 매수 확산.**
- 코스피 기관(+120억원) vs 외국인(-4,086억원, 5거래일 연속 순매도)·개인(-560억원), 코스닥 기관(+2,296억원) vs 외국인(-2,104억원)·개인(-93억원). 여타 아시아 증시는 닛케이225(+0.7%)·**대만 가권(-4.4%)**·홍콩 항셍(-1.9%).

주: 한국시간 오전 7시 · KRX 정규장 기준 자료 출처: 코스콤,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Eugene Daily Snapshot

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

한한령 수혜 소비주·소부장 급등 & 통신·금융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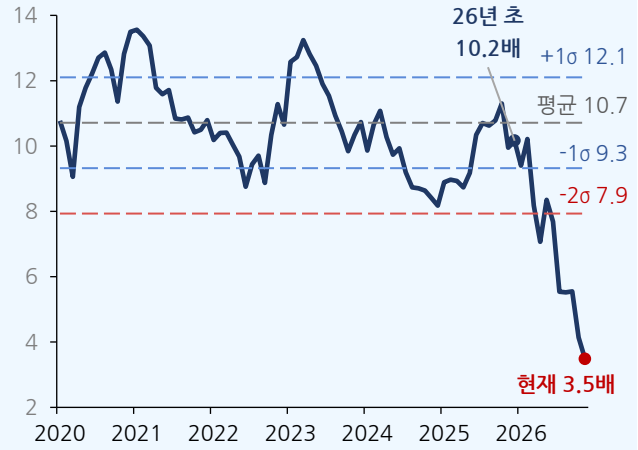
- 중국 소비주(미디어·화장품)·AI 하드웨어(소부장·기판·전력) 강세 ↔ 정유·금융 약세. 한한령 완화 기대가 엔터에서 드라마, 화장품으로 확산.
- (반도체) 삼성전자(+1.1%)·SK하이닉스(+3.4%)는 엔비디아 약세, 연준 추가 긴축 우려에 장 초반 밀렸다가 오후 상승 전환. 소부장은 전공정(테스 +16.3%·피에스케이 +12.3%)·후공정(리노공업 +10.6%·ISC +8.2%) 모두 급등해 상승폭이 대형주를 상회함.
- (기판·전력기기) 삼성전기(+9.3%)는 엔비디아 협력 확대 기대로 이틀 연속 급등. 코리아써키트(+7.0%)도 동반 강세. 전력기기도 상승, HD현대일렉트릭(+8.6%), 효성중공업(+6.9%).
- (엔터·미디어) 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 협상 타결 이후 한한령 완화 기대 지속. 전일 기획사에 몰렸던 매수세가 드라마·콘텐츠로 확산. 스튜디오드래곤(+30.0%, 상한가)·CJ ENM(+28.1%) 급등, 하이브(+13.7%)도 상승폭 확대.
- (화장품·유통) 중국 관광객 유입 기대에 면세·백화점(호텔신라 +10.3%·신세계 +10.5%)과 화장품(아모레퍼시픽 +9.0%·달바글로벌 +12.7%) 강세.
- (정유·금융) 미국 원유재고 증가로 WTI가 3개월 만 최저로 급락. SK이노베이션(-5.5%)·S-Oil(-4.0%) 부진. 은행(KB금융 -2.2%) 약세, 보험도 하락(미래에셋생명 -4.5%)
- (코스닥) **주요 업종 전반 강세.** 소부장·바이오(씨어스 +16.8%)·로봇(로보티즈 +6.1%)·게임(펄어비스 +6.0%) 상승.

오늘의 클로즈업

악재는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

- 11월 초중반 미국 중간선거,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임,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, 연준 인사들의 12월 금리인상 시사 등 굵직한 이벤트가 잇따르며 증시 피로도가 누적됨. **코스피는 11월 들어 -10.4% 하락하며(11/19일 종가 기준) 10월(-16.2%)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하락함.** 11월 코스닥은 -5.5% 하락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으나, 연초 대비로는 -26% 하락함.
- 남은 일정은 11/23일 美 11월 S&P글로벌 PMI 예비치, 11/25일 美 10월 PCE·3분기 GDP 잠정치·베이지북, 11/26일 韓 금통위, 11/26~27일 EU 특별정상회의(브뤼셀)임. 대체로 확인 성격이 강한 일정들로, **악재로 반영될 만큼 영향력이 큰 이벤트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.**
- **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3.5배로, 연초 10.2배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-3σ 밴드 하단까지 이탈함.** 이익 추정치 대비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판단임. 10~11월 두 달간 코스피 누적 하락률도 -25%에 달해 단기 조정 폭이 상당히 컸음. 악재 대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만큼, 연말까지 컨센서스 이익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**현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.**

코스피 12 개월 선행 PER -3σ 밴드 하단 이탈



주: 평균, ±1σ, -2σ는 2020~2025년 월말 기준

증시 자금 동향

(단위: 조원)

		11/18 일	1D	1W	1M
고객예탁금		84.2	-2.44	-1.30	-10.22
신용잔고	거래소	19.9	-0.06	0.15	-4.70
	코스닥	5.9	-0.01	0.19	-1.27
수익증권	주식형(전체)	0.0	0.00	-170.91	-176.17
	채권형(전체)	0.0	0.00	-208.62	-206.65
MMF		292.5	1.09	20.65	31.63

KOSPI 52 주 신고가 · 신저가

52 주 신고가 (6 종목)		52 주 신저가 (49 종목)	
한국공항	▲10.7	남성	▼6
롯데렌탈	▲0.8	SK 아이이테크놀로지	▼5.1
에스원	▲0.7	서원	▼3.8
아시아나항공	▼1.1	율촌화학	▼2.6
제주항공	▼1.8	씨아이테크	▼2.6
현대그린푸드	▼2.3	세방전지	▼2.2
		미래에셋증권 2 우 B	▼2
		SG 글로벌	▼1.9
		한국단자	▼1.8
		SUN&L	▼1.7

KOSPI 기관/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(15:30)

순위	종목명	종가(원)	등락률	대금(억원)
1	삼성전기	885,000	▲9.3	951
2	셀트리온	215,000	▲3.6	311
3	대한항공	32,450	▲3.7	261
4	코리아써키트	99,200	▲7	85
5	삼성중공업	16,150	▲2.5	71
6	HMM	22,550	▲1.1	61
7	호텔신라	38,550	▲10.3	53
8	전진건설로봇	44,300	▲13.3	47
9	대우건설	11,320	▲5.8	40
10	두산에너빌리티	43,800	▲1.7	39